

럭셔리 펀드가 관심을 끄는 이유

럭셔리 펀드가 감성을 노크한다

럭셔리제품의 수요층은 한정돼 있다.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부터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샤넬 원피스 그리고 수억 원대에 이르는 람보르기니 자동차까지 명품은 가격부터 평범함을 거부한다. 이렇게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그들 기업에서 탄생시키는 제품만큼 그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다. 적어도 한국 명품, 그리고 럭셔리 펀드로 이어지는 일련의 투자 등고선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에디터 | 김대환 · 사진 | <노블에셋>



올해 초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인 ‘럭셔리 펀드’가 국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그리고 꾸준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어느덧 간접투자상품의 한 축으로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경제야 놀자’ 코너에 소개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 럭셔리 펀드는 ‘이왕이면 다 흥치마’라는 한국인 특유의 국민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명품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지난해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신흥 부자들이 명품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명품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정도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게다가 남미, 동유럽 등에서 새로운 소비 세력이 출현함으로써 럭셔리 상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을 밝히는 등 해외 투자를 독려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럭셔리 펀드는 더욱 매력적인 금융 상품이다. 소위 명품의 주고객층인 백만장자의 꾸준한 증가세 또한 명품 회사의 매출 신장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870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비중이 27%인 240만 명으로 추정된다. 매년 백만장자의 수는 6.5%씩 늘어나고 특히 아·태 지역에서는 7.3%의 증가율을 보여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다.

국내 럭셔리 펀드 인기몰이

럭셔리 펀드는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 펀드(Sector Fund)의 일종이다. 그러다 보니 패션, 보석, 시계, 화장품 등 기존 명품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섹터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명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럭셔리 펀드는 명품을 살 수 있는 고액 자산가 수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명품 시장이 연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펀드다.

한국투신운용은 세계의 명품 브랜드에 투자하는 ‘한국월드와이드 럭셔리종류형투자신탁’을 내놓았다. 이 펀드는 루이비통을 만드는 프랑스 LVMH나 고급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스포츠카의 대명사 포르쉐 등의 주식에 투자한다. 특히 의류와 자동차 등 다양한 브랜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침체돼도 다른 곳에서 손실을 메꿀 수 있다. 한국투신운용 글로벌운용팀 현동식 과장은 “명품 시장은 전통과 브랜드 비용 문제로 진입 장벽이 높고,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역사가 긴 만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럭셔리 펀드는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4일 출시한 우리CS운용의 ‘글로벌럭셔리주식투자신탁’은 복제 펀드로써 프랑스에서 같은 펀드를 운용하는 크레디트 스위스운용팀이 운용하지만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라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5.5% 수준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BMW, PPR, 빌레티노 그룹 등 대표적 편입 종목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유럽의 프라이빗 이큐트 펀드인 ‘퍼미라 어드바이저(Permira Advisors)’가 이탈리아의 고급 패션 브랜드 회사인 발렌티노 패션 그룹을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유럽의 M&A 섹터가 명품 섹터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례로, 실제로 세계적인 펀드사들이 미국 리츠, 천연자원 기업에 이어 유럽 명품 회사까지 입질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CS자산운용사의 김동석 팀장은 “지난 3개월간 수익률이 7.6%(수수료 제외 이전)에 달해 명품 섹터의 주가 상승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에 34%를 투자하고, 섹터별로는 가방·구두 등 가죽제품과 의류 부문이 30%다.

이외에 기은SG자산운용의 ‘기업SG럭셔리라이프스타일펀드’가 있다. 럭셔리 상품의 본고장인 파리에서 직접 운용하는 이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루이비통, 구찌 등 고가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프랑스의 대표적 자산운용사 소시에테제네럴자산운용(SGAM) 본사에서 2002년부터 운용 중인 동일한 펀드를 복제해 국내에서 설정한 후 본사 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히 이 펀드는 의류, 보석, 화장품, 시계뿐 아니라 자동차, 보트, 호텔, 홈 액세서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섹터를 자랑한다. 현재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1300억 원이다. 기은SG자산운용 마케팅 본부 이진서 상무는 “명

품 시장은 연평균 7%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 이미징 시장의 신흥 부유층 증가로 계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일반 소비재 회사보다 영업 마진이 20~30% 수준으로 높고, 백만장자의 점진적 증가와 고령화 추세로 수요가 안정적인 데다 경기 사이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럭셔리 산업의 성장과 전망은 밝다”고 럭셔리 펀드의 꾸준한 성장세를 예상했다.

럭셔리 펀드 수익률 7%대로 안정적

소비자는 정서적으로 프라이드를 만끽하거나 품질의 가치에 대한 만족도가 큰 상품에 대해서는 기꺼이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명품의 주 소비 주체가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라는 말도 들리는 만큼 주의할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7%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럭셔리 펀드는 2002~2003년 사이에 글로벌 거시경제의 둔화와 여행 산업의 불경기에 타격을 받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던 것처럼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국내에 출시된 럭셔리 펀드의 국가별 비중은 고급 브랜드 회사가 집중된 프랑스가 여전히 가장 크다.

최근 프랑스 이외의 종목 편입률이 증가해 소폭 하락한 34% 수준이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섹터도 전통적인 명품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호화 요트, 스포츠 용품, 여행사, 의학 기구 등으로 점차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향후 럭셔리 펀드의 동향은 지금부터 예의주시할 때라는 것이다. ☞

〈표〉 저축 은행 부동산 및 PF 대출 추이

(기준일 : 2007년 7월 20일)

(단위 : 억 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수익률				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 이후	
한국월드와이드럭셔리종류형주식P-1(A)	한국운용	20061215	545	-5.57	-5.14	0.53	2.77	일반형
한국월드와이드럭셔리종류형주식P-1(C)	한국운용	20070104	809	-5.65	-5.37	0.08		일반형
우리CSGlobalLuxury주식1ClassC-W	우리CS운용	20070214	1	-5.89	-5.07			일반형
우리CSGlobalLuxury주식1ClassA1	우리CS운용	20070214	267	-5.97	-5.30			일반형
우리CSGlobalLuxury주식1ClassC-e	우리CS운용	20070214	32	-6.01	-5.42			일반형
우리CSGlobalLuxury주식1ClassC1	우리CS운용	20070214	520	-6.05	-5.51			일반형
기은SG링크럭셔리라이프스타일주식자A	기은SG운용	20070220	372	-4.34	-2.78			일반형
기은SG링크럭셔리라이프스타일주식자C 1	기은SG운용	20070220	583	-4.38	-2.90			일반형
기은SG링크럭셔리라이프스타일주식자C 2	기은SG운용	20070223	1	-4.25	-2.53			일반형
우리CSGlobalLuxury주식1ClassC2	우리CS운용	20070540	10	-6.03	-5.46			일반형
기은SG링크럭셔리라이프스타일주식자C 3	기은SG운용	20070615	14	-4.25				일반형
국제주식 일반형 유형평균(409개 펀드)				-1.24	8.01	11.74	13.20	

자료 : 제로인 www.funddoctor.co.kr